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재원·입법 추진계획과 국정과제 관리 및 공유·확산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구성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
 - 국정 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내세움.
 -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세움.
 - 총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가 제시됨.
 - 국정과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당 정책공약집, 야당 공약 및 국민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함.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국정과제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 포함됨.

국정과제 체계도

5대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3대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천하는 농산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23대 국정과제	19개	29개	23개	37개	15개
564개 실천과제	79개	137개	113개	173개	62개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 2025-08-12 | 미국 고용통계국

- 2025년 8월 12일 미국 고용통계국이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함.
 -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0.2%로 지난 6월(+0.3%)보다 상승폭이 둔화됨(주간브리프 Vol.28).
 -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항목은 주거비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함.
- *계절 조정을 거친 지난 한 달간 변화
- 식품 부문은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으나(0.0%),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함.
 - 전월 대비 식품 물가의 경우, 외식비가 소폭(0.3%) 상승했으나 가정 내 식품(-0.1%)은 하락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 식품 물가는 육류·가금류·어패류·계란의 가격 상승(5.2%)이 전체 물가 상승을 영향을 미침.
- 에너지 부문은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함.
 - 유가 하락이 전체 에너지 가격 하락에 크게 기여하였음. 7월 유가는 전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9.5% 하락함.
 - 반면,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1%, 0.9%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5.5%, 13.8% 상승하였음.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함.
 - 전월 대비 의료비(0.7%), 항공료(4.0%), 여가(0.4%), 가구(0.4%), 중고차(0.5%) 등의 물가가 상승함.
 - 반면, 전월 대비 숙박(-1.0%), 통신(-0.3%) 등 일부 서비스 가격은 하락함.
- 주거비·의료비·자동차 보험료 등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하고 있음.
- ❖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미국 고용 시장 둔화 흐름과(주간브리프 Vol.30), 2%대를 유지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예상보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가 높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2024~2025년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국내 경제 동향

● 2025년 6월 경상수지 142.7억 달러 흑자 ■ 2025-08-07 한국은행

- 2025년 8월 7일 한국은행은 「2025년 6월 경상수지(잠정)」를 발표하였음. 6월 경상수지는 142.7억 달러 흑자로, '23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
- 지난 5월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1.3억 달러 증가하였으며(101.4억 달러→142.7억 달러), 이는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와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한 본원소득수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상품수지) 수출이 603.7억 달러, 수입은 472.1억 달러로 13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 반도체(11.3%*), 선박(64.8%*)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화공품(5월 -12.3%→6월 -3.6%*), 승용차(5월 -5.6%→6월 -0.3%*)의 수출 감소세도 둔화됨.
- 수입: 에너지류(-18%*)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6.4%*)이 감소하였으나, 자본재(14.8%*)와 소비재(7.6%*)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이 증가함.

*전년 동월 대비

- (서비스수지) 여행(-10.1억 달러), 기타사업서비스*(-15.4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2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경영건설당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등
- (본원소득수지) 지난 5월 대비 20.1억 달러 증가하면서 4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전년 대비 배당소득 흑자 폭 확대(15.9억 달러→ 34.4억 달러)
- (이전소득수지) 5.3억 달러 적자

■ 2023년 4월~2025년 6월 경상수지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농림수산업성 2025년 상반기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발표 | 2025-08-04 농림수산업성

-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2025년 상반기(1~6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이 8,097억 엔으로, 전년 동기(7,011억 엔) 대비 15.5% 증가했다고 발표함.
 - 부류별 수출액: 농산물 5,231억 엔, 임산물 371억 엔, 수산물 1,994억 엔, 소액화물* 501억 엔
 - 국가별 수출액: 미국 1,410억 엔, 홍콩 1,068억 엔, 중국 902억 엔, 대만 806억 엔, 한국 507억 엔
- *소액화물은 1품목당 20만 엔 이하로 수출입 신고 시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이며, 별도 조사를 통해 집계
- *참고로 우리나라 2025년 상반기 농식품(K-Food) 수출은 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 2025년 상반기 일본의 수출 1위 국가는 미국(1,410억 엔)이며, 전년 동기 대비 일본의 수출액 증가폭이 큰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순임.
 - 미국: 2025년 4월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가리비, 녹차, 방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액 254억 엔(22.0%) 증가
 - 중국: 원목, 일본주(酒), 배합 조제사료 수출의 증가로 인해 수출액 118억 엔(15.0%) 증가
 - 한국: 인스턴트 커피, 맥주, 정어리 수출 증가로 인해 수출액 93억 엔(22.3%) 증가
- 주요 농축산식품 중 녹차, 쇠고기, 주류(위스키 및 일본주(酒))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녹차: 건강 지향 트렌드 및 일본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특히 말차(抹茶) 등 분말 차 형태가 유럽·미주·동남아 중심으로 수출 104억 엔 증가
 - 쇠고기: 대만과 태국의 외식업체 및 소매를 중심으로 신규 유통 경로 개척에 따라 수출 44억 엔 증가
 - 주류(위스키 및 일본주(酒)): 싱가포르 및 중국의 재고 해소에 따라 위스키 수출 36억 엔 증가, 중국 및 홍콩의 일본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일본주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24억 엔 증가
- 농림수산업성이 수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수출 증가 요인으로는 ①해외 일본 음식점의 증가, ② 일본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 확대, ③일본 방문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인지도 향상, ④건강 지향 식품 소비 확대 트렌드 등이 있음.

● EU, 2025년 단기 농업시장 전망 발표 | 2025-07-28 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봄 기준 단기 농업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품목 생산·수급·무역 동향을 분석함.
 - 유럽연합의 단기 농업시장 전망 보고서는 연 2회(봄·가을) 정기 발행되며,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 상반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기 시장 동향 진단 및 전망 제공
 - 해당 보고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기후변화, 무역정책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 회복, 수출 증가, 가격 안정 등 긍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U 농업 전반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은 둔화되고 있으나, 품목별 생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남.
- 주요 곡물·육류·유제품 생산은 회복세를 보였으며, 일부 과일·채소는 기상악화로 작황 부진이 나타남.
 - (곡물) 생산량 4.1% 증가 전망, 수출 +26%, 수입 -19%로 무역수지 개선 기대
 - (유지작물) 유채·해바라기 등 오일 및 단백질 작물 생산 약 12% 증가
 - (설탕) 2024/25년 생산 증가, 2025/26년에는 면적 감소로 생산 둔화 전망
 - (과일·채소·올리브유) 기상이변으로 토마토·복숭아·사과 작황 부진, 올리브유 가격 급락
 - (유제품) 원유 공급 안정, 치즈·유청 중심 생산 증가, 수출 비교적 안정
 - (육류) 돼지고기 회복세, 쇠고기·가금류 수요 견조, 수출 확대는 제한적
- 유럽연합은 이러한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 이슈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강화와 정책 유연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임.
 - 특히 공급망 복원력 제고, 기후 친화적 농업 전환, 무역 다변화 등이 중장기 전략과제로 제시됨.

■ 주요 품목별 전망 요약 ■

품목군	핵심 전망
곡물	- 2025/26년 EU 곡물 생산은 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 수출은 +26%, 수입은 -19% → 무역수지 개선 기대
유채·해바라기 등 유지작물	- 생산량 약 12% 회복, 오일 및 단백질 작물 시장 회복 흐름
설탕	- 2024/25년 생산량은 6.5% 증가하였으나, 2025/26년에는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 감소·수입 증가 가능성 존재
과일·채소·올리브유	- 올리브유 생산 증가로 가격 급락 - 토마토·복숭아·사과 등은 기상악화로 작황 부진 및 교역 변화 전망
유제품	- 원유 공급 안정적, 치즈·유청 중심 생산 증가 - 전체 수출량은 비교적 안정적 유지될 전망
육류	- 돼지고기 회복세, 쇠고기·가금류 수요 안정적 -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국내 농업·농정 동향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6% 상승 ■ 2025-08-08 FAO, 2025-08-09 농림축산식품부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25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함.
 - FAO는 2025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123.9포인트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수치임.
 - 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하였으며, 유지류 및 육류 가격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주요 품목별 전월 대비 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유지류) 팜유·대두유·해바라기유의 글로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7.1% 상승
 - (육류) 소·양·닭고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평균 1.2% 상승, 돼지고기는 하락
 - (곡물) 밀·옥수수 공급 확대에 따라 0.8% 하락
 - (유제품) 버터·분유 가격 하락으로 0.1% 하락
 - (설탕) 인도·태국 생산 확대 전망에 따라 0.2% 하락
- FAO는 2024/25년도 세계 곡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함.
 -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억 4,7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
 - 곡물 소비량은 28억 7,0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 이에 따라 세계 곡물 재고량은 1.8% 감소, 잡곡 재고는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식량 시장 불안이 국내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응체계를 운영 중임.
 - (시장 모니터링) 주요 곡물 수출입 동향 및 물류비·운송 리스크 상시 점검
 - (수급 안정) 도매시장 및 소비지 가격·수급 동향 분석, 사전 대응 계획 수립
 - (대외 협력)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식량 위기 대응 협력 지속
-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제 식량 가격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생산 기반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